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호 [부록 제25532호] 주체106(2017)년 1월 23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고강기섭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민용항공총국 총국장인 강기섭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1월 22일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의방문에는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 리명수동지, 박영식동지, 김용수동지, 조용원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령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옆에 서있었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장내는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일편단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강기섭동지를 너무나

뜻밖에 잃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속에 유능한 비행지도일군으로 성장하여 중요비행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을뿐만아니라

국제, 국내정치항로운명을 성공적으로

고인의 유가족들을 만나시여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면서 따듯이 위로해 주시였다.

보장함으로써 우리 당과 국가의 대외적권위를 높이였으며 나라의 항공운수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혁명전사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귀중한 혁명전우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강기섭동지의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고요히 잠든 사랑하는 전우의 얼굴을 살펴보시며 강기섭동무는 일욕심이 많고 사업에서 도식을 모르며 침착하고 책임성이 높은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길을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가슴아프시여 오래도록 격한 심정을 누르지 못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을 만나시여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면서 따듯이 위로해 주시였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연구보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대한 연구도론회와 특보회가 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예쥘트, 탄자니아에서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오스트리아 교오스트리아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청년소조 책임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난해 조선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사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였다. 조선인민이 새해에도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리라고 확신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에서 해마다 벌려놓는 위험한 실험장면들을 견어치워야 한다.

조선인민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다. 에스파냐 마드리드주체사상연구소 조 책임자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지침이다. 신년사를 통하여 고인의 사상과 뜻을 잘 알게 되었다.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펼쳐나선 조선인민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라고 말하였다.

예쥘트주체사상연구소위원회 위원장인 예쥘트조선선진협회 위원장, 주체사상연구소 조 판자니아전국조직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선의 자주적 통일실현에서 나오는 과업들을 명시한 위대한 강령이다. 올해에도 조선인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전진총돌격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심단결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위대한 나라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천만군이 굳게 뭉쳐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진전을 다그쳐나가는 주체조선의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세계가 경탄하고있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프랑스노아르스크지부 책임자 예델리아네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모습이다. 조선인민은 수행을 끝없이 힘 모으고 따르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사회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고 있다.

당과 국가, 인민이 하나의 통일적인 체제를 이룬 사회주의조선은 일심단결로 전진하며 승리하고있다. 쿠웨이트 아시아기자협회 위원장 자히드 아흐마드는 조선에서는 명도자와 인민이 순결하고 공고한 동지적의리의 관계를 맺고있다.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가장 악랄한 제재 압살책동추에서도 끄떡없이 전진하고있는것은 바로 일심단결이라는 위대한 힘이 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스페인기자협회 연구회 위원장 페르난데스, 에이. 두민두와 드라네는 다음과 같이 토로하

였다. 선대수령들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김정은동지께서 위하여 조선은 정치군사강국,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고있다.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해 나가시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한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앙드레 로베르페 말론다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나라의 존엄과 명예를 만방에 빛내이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

의 길로 끝까지 전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명도자는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명도자를 끝없이 신뢰하는 혼연일체에 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일심단결과 선군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해나가는 주체조선의 무적막강한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진실과 객관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일떠선 보배공장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 첫 현지지도를 받은 평양가방공장을 돌아보고

새해의 행군길에 새겨진 거룩한 자욱

새해를 맞은 온 나라 천만군민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이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는 어느 단위에 현지지도의 첫 자욱을 새겨실까.

최전선으로 나가서 새롭고 훌륭한 공장이나 협동농장이...

자녀들의 초소와 일터에 부러 모시고 싶은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이 울릴거리며 바다와 같이 넓어질 때인 지난 1월 5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첫 현지지도 보도가 전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하신 눈물겨운 구절들이 파고들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제 인민이 앞날을 밝고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의 순간이 아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에서 내세운 전향단위들을 따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평양가방공장이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

적인 현지지도에서 온 나라 인민이 받아안은 격정은 참으로 깊다.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위 로 바꾸시고 새로 일떠선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로써 온 나라 인민은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머금었다. 더우기 새해의 첫 전진군에 그처럼 빛이 쏘인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의 일터에 모시는 최상의 영광을 지닌 평양가방공장 일꾼들과 노동자들의 가슴가슴은 더욱더 크 나른 격정으로 설렘었다.

《꽃같은 그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평양가방공장이 일떠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가방사재, 가방공인이 들끓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일터에서 공장에서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가방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었고 나 열마나 좋은가고, 별세상에 와본것 같은 오솔을 잊지 못할것 같다고 시종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리면서 평양시가 당 정경관들의 기치를 제일 먼저 들었다고 평양시당위원회 사무실을 높이 평가해주셨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인애와 온정을 받았으며 시장 위원회와 공장일꾼들은 물물마를 물었다. 평양가방공장을 온 나라의 본보기로 꾸려주시길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드려왔는데 거들되는 평가를 주시니 일꾼들은 송구스러움을 감할수 없었다.

《새년 평양가방공장이 오늘과 같이 학생들과 인민들의 가방을 원본으로 생산하는 온 나라의

본보기공장으로 일떠서기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 사랑, 인민사랑의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깊이 아로새겨져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학생가방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당정책을 판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배 임하며 평양에서 학생가방생산 기지를 완전히 특화된 몇몇 평 양가방공장을 가장 빠른 기일안 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결 사의 각오를 안고 만리마의 속 도로 질풍같이 내달렸다.》

《나과 같이 평양시에서 근무하는 학생가방공장을 가장 빠른 기일안 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결 사의 각오를 안고 만리마의 속 도로 질풍같이 내달렸다.》

《나과 같이 평양시에서 근무하는 학생가방공장을 가장 빠른 기일안 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결 사의 각오를 안고 만리마의 속 도로 질풍같이 내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귀중한 가르치심과 크나큰 온정을 받아 온 시인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다.

《시당위원회와 지도부에 시인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가장빠른진도에 선약같이 일 떠났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대로 평 양가방공장을 가장 빠른 기일안 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결 사의 각오를 안고 만리마의 속 도로 질풍같이 내달렸다.》

《나과 같이 평양시에서 근무하는 학생가방공장을 가장 빠른 기일안 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결 사의 각오를 안고 만리마의 속 도로 질풍같이 내달렸다.》

《나과 같이 평양시에서 근무하는 학생가방공장을 가장 빠른 기일안 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결 사의 각오를 안고 만리마의 속 도로 질풍같이 내달렸다.》

는 물론 질풍은 가장까지 생산 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는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힘겨워도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가슴이 뚫뚫해진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꾼들은 뜨거울것이 차임어오르는것을 감할수 없었다.》

《일꾼들은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그처럼 만족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모두 우리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영도자를 친어머리로 모시고 삼배 무릎하는가 하는 크나큰 감사와 자부심으로 가슴뚫뚫해지는것을 누누히 감 할수 있었다.》

《꽃같은 새해의 첫 전진군에서 평양가방공장을 제일 먼저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현지지도에는 2017년의 신년사에서 올해에도 더욱 분발 하고 전진전격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갈 결심을 가 다들게 된다고 하신 인민의 위대한 어머니의 드림없는 의지가 뜨겁게 깃들었다.》

《하기에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되새기는 심정마다 받아안은 수도는 일꾼들과 공장종업원들은 물론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조 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설계 도를 따라 평등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갈 결사의 명세로 새창에 새겨져있었다.》

《평양가방 공장 최수 북

다실한 친어머리 심정으로

제일 먼저 관심하신 분제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먼저 공장전 경도에서 일꾼들의 해설을 들으시다가 공장의 국산 화비중이 얼마인지를 물으 셴다.

《일꾼들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 양가방공장을 일떠세우면서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95% 이상 보장한것 은 대단한 성과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이 국산화된 공장의 생산 공정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가 만든 몇몇이 가방을 예고 학교로 오가며 갖고 떠돌아다니는 모습이 때 율라 마음이 후스러웠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 요한 모든것은 우리가 만

들어 안겨주어야 그들이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는 참된 애국의 마음을 간직 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제일 먼저 관심하신 국산 화비중제, 여기에는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에게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어나가는 애 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 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 었다.》

《생산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

《그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당조직들 이 사업에 생산 못지 않게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는 뜻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의 말씀을 자자구구 새기는 일꾼들은 머리가 숙 어졌다.》

《지금까지 해당 단위들의 과학기술보급실운영실태를 보 면 많은 경우 보급실을 운영 을 강화할수 있게 정상적 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종업원들의 인식정도를 표 현하고 학습계획도 구체적 으로 주어야 한다고 하시 었다.》

《찾으시는 보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머리 하나하나 마련해주신것이 아니었던가.》

《하디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의지를 굳히시고 아이들과 인민들의 커가는 행복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로써 입꾼들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숭고 한 뜻을 더욱 친밀한 현실로 꽃피우길 바라는 결의를 다 지었다.》

《본사기자 장 선 속

거가는 행복속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머리 하나하나 마련해주신것이 아니었던가.》

《하디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의지를 굳히시고 아이들과 인민들의 커가는 행복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로써 입꾼들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숭고 한 뜻을 더욱 친밀한 현실로 꽃피우길 바라는 결의를 다 지었다.》

《본사기자 장 선 속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질풍과 밧있는 가방을 더 많이 생산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신 승 혁 적음

또다시 받아안은 고귀한 지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품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에서 내세운 전향단위들을 따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지지도의 그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단정하신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력자강의 창조적인 공장을 돌아보신 사연들은 누구나 감한 을 금치 못했다.》

《특히 제품전반에 걸쳐서면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만든 가방이 세월이 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벅 차오른다.》

《여기에는 공장로동계급이 만든 소학교학생가방으로부터 더 학생가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취미와 기호, 미감에 맞는 갖가지 형태와 색깔의 가방들이 진열되어있다.》

《더우기 사생활을 높여주는 것은 가방전과 자코, 레프 등 가 방생산에 리용된 원료와 자재들이 모두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공장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공장들에서 생산된것이라는데 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품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에서 내세운 전향단위들을 따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지지도의 그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단정하신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력자강의 창조적인 공장을 돌아보신 사연들은 누구나 감한 을 금치 못했다.》

《특히 제품전반에 걸쳐서면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만든 가방이 세월이 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벅 차오른다.》

《여기에는 공장로동계급이 만든 소학교학생가방으로부터 더 학생가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취미와 기호, 미감에 맞는 갖가지 형태와 색깔의 가방들이 진열되어있다.》

《더우기 사생활을 높여주는 것은 가방전과 자코, 레프 등 가 방생산에 리용된 원료와 자재들이 모두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공장을

서 보배공장, 본보기, 표준단위 라고 칭할까 불러주시는 공장들은 그 열마이던가.》

《그러고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단위들은 배의없이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가 실현되고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 한 공장이었으며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단위였었다.》

《공장이 아무리 현대화되고 제품들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그것이 국산화를 떠난것, 지역 자강의 산물이 아니라면 가치가 없는것이였다.》

《바로 그것이였다.》

《보배공장,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자력자강의 가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공장,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무 하는 공장였다.》

《그래서 현지지도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감동하시던것이였다.》

《보배공장의 의미는 참으로 귀 중한것이였다. 그것은 우리의 실정마다에 억대의 재부에도 비 기지 못할 고귀한 진리를 다시 금 새워주고있다.》

《국산화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라고, 우리가 갈것은 오 직 자력자강의 한길이라고.》

《본사기자 김 창 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이끌어 갈 귀양아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평양시의 흥일거리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찾았다.》

《평수에서 찾았는가 하늘에서 내렸는가 소문도 없이 일떠선 몇몇이전물들이 우리를 먼저 주었다.》

《공장일꾼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먼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제품전반에 둘러 보았다.》

《제품전반에는 공장로동계급이 만든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는 각종 남녀학생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우리의 공장들에서 생산한 가방전과 부속자재를 가지고 만든것이였다.》

《다음으로 들린 곳은 세단작업장이였다.》

《가방생산의 첫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든 레이 자제단기제 가방틀을 세단하고 있었는데 실수물이 대단히 높 았다.》

《우리는 어서 빨리 가방을 만 드는 모습을 보고싶어 세단1작업의 작업현장을 찾았다.》

《남방보장이 잘되어 한겨울에 도 훌륭한 햇빛같은 현장을 산뜻한 작업복을 차려입은 여성 로동자들이 가방을 만드느라 여 념이 없었다.》

《직장에서는 다가오는 새 학년 도를 맞으며 시인의 소학교선생님 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가방생 산전투가 한창이였다.》

《한쪽에서는 세단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세단틀들이 판매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수율은 완성 된 가방들이 포장작업장으로 실 려가고있었다.》

《하루마다 학생들에게 가방을 안겨줄 일념으로 가방생산에 열 기게 되고 그 가방을 예고 갈기 학생이 되어 학교에 가고있는 심 정이였다.》

《우리가 작업에 열중하고있는

방문기

크나큰 은정속에 넘치는 행복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이끌어 갈 귀양아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평양시의 흥일거리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찾았다.》

《평수에서 찾았는가 하늘에서 내렸는가 소문도 없이 일떠선 몇몇이전물들이 우리를 먼저 주었다.》

《공장일꾼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먼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제품전반에 둘러 보았다.》

《제품전반에는 공장로동계급이 만든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는 각종 남녀학생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우리의 공장들에서 생산한 가방전과 부속자재를 가지고 만든것이였다.》

《다음으로 들린 곳은 세단작업장이였다.》

《가방생산의 첫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든 레이 자제단기제 가방틀을 세단하고 있었는데 실수율이 대단히 높 았다.》

《우리는 어서 빨리 가방을 만 드는 모습을 보고싶어 세단1작업의 작업현장을 찾았다.》

《남방보장이 잘되어 한겨울에 도 훌륭한 햇빛같은 현장을 산뜻한 작업복을 차려입은 여성 로동자들이 가방을 만드느라 여 념이 없었다.》

《직장에서는 다가오는 새 학년 도를 맞으며 시인의 소학교선생님 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가방생 산전투가 한창이였다.》

《한쪽에서는 세단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세단틀들이 판매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수율은 완성 된 가방들이 포장작업장으로 실 려가고있었다.》

《하루마다 학생들에게 가방을 안겨줄 일념으로 가방생산에 열 기게 되고 그 가방을 예고 갈기 학생이 되어 학교에 가고있는 심 정이였다.》

《우리가 작업에 열중하고있는

작업현장 조순숙동무에게 재봉 공들의 열의가 안겨지던이 아니 라고 하자 그는 현지지도의 그 날 하나를 만들어도 지식들의 가 방을 만드는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신다.》

《우리의 만난 세단1작업 부문 당위원장 림승희동무는 재봉공 들모두가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을 받기위하여 불꽃같은 전투를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이 려게 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 가신 일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줄 가방을 만든다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정성을 다하고있습 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여성로동자들은 기대불없이 나 란히 앉아 가방부품들을 완성 하려고 열심에 일군을 쏟고있 었다.》

《마감공정에 가보니 우리 아이들의 취미와 기호, 미감에 맞는 학생가방들이 한층더 나아 오고있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 의 그림들이 새겨져있는 가방을 보니 지도모르게 동심이 열 기게 되고 그 가방을 예고 갈기 학생이 되어 학교에 가고있는 심 정이였다.》

《우리가 작업에 열중하고있는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이끌어 갈 귀양아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평양시의 흥일거리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찾았다.》

《평수에서 찾았는가 하늘에서 내렸는가 소문도 없이 일떠선 몇몇이전물들이 우리를 먼저 주었다.》

《공장일꾼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먼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제품전반에 둘러 보았다.》

《제품전반에는 공장로동계급이 만든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는 각종 남녀학생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우리의 공장들에서 생산한 가방전과 부속자재를 가지고 만든것이였다.》

《다음으로 들린 곳은 세단작업장이였다.》

《가방생산의 첫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든 레이 자제단기제 가방틀을 세단하고 있었는데 실수율이 대단히 높 았다.》

《우리는 어서 빨리 가방을 만 드는 모습을 보고싶어 세단1작업의 작업현장을 찾았다.》

《남방보장이 잘되어 한겨울에 도 훌륭한 햇빛같은 현장을 산뜻한 작업복을 차려입은 여성 로동자들이 가방을 만드느라 여 념이 없었다.》

《직장에서는 다가오는 새 학년 도를 맞으며 시인의 소학교선생님 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가방생 산전투가 한창이였다.》

《한쪽에서는 세단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세단틀들이 판매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수율은 완성 된 가방들이 포장작업장으로 실 려가고있었다.》

《하루마다 학생들에게 가방을 안겨줄 일념으로 가방생산에 열 기게 되고 그 가방을 예고 갈기 학생이 되어 학교에 가고있는 심 정이였다.》

《우리가 작업에 열중하고있는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이끌어 갈 귀양아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평양시의 흥일거리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찾았다.》

《평수에서 찾았는가 하늘에서 내렸는가 소문도 없이 일떠선 몇몇이전물들이 우리를 먼저 주었다.》

《공장일꾼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먼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제품전반에 둘러 보았다.》

《제품전반에는 공장로동계급이 만든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는 각종 남녀학생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우리의 공장들에서 생산한 가방전과 부속자재를 가지고 만든것이였다.》

《다음으로 들린 곳은 세단작업장이였다.》

《가방생산의 첫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든 레이 자제단기제 가방틀을 세단하고 있었는데 실수율이 대단히 높 았다.》

《우리는 어서 빨리 가방을 만 드는 모습을 보고싶어 세단1작업의 작업현장을 찾았다.》

《남방보장이 잘되어 한겨울에 도 훌륭한 햇빛같은 현장을 산뜻한 작업복을 차려입은 여성 로동자들이 가방을 만드느라 여 념이 없었다.》

《직장에서는 다가오는 새 학년 도를 맞으며 시인의 소학교선생님 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가방생 산전투가 한창이였다.》

《한쪽에서는 세단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세단틀들이 판매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수율은 완성 된 가방들이 포장작업장으로 실 려가고있었다.》

《하루마다 학생들에게 가방을 안겨줄 일념으로 가방생산에 열 기게 되고 그 가방을 예고 갈기 학생이 되어 학교에 가고있는 심 정이였다.》

《우리가 작업에 열중하고있는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이끌어 갈 귀양아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평양시의 흥일거리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찾았다.》

《평수에서 찾았는가 하늘에서 내렸는가 소문도 없이 일떠선 몇몇이전물들이 우리를 먼저 주었다.》

《공장일꾼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먼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제품전반에 둘러 보았다.》

《제품전반에는 공장로동계급이 만든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는 각종 남녀학생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우리의 공장들에서 생산한 가방전과 부속자재를 가지고 만든것이였다.》

《다음으로 들린 곳은 세단작업장이였다.》

《가방생산의 첫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든 레이 자제단기제 가방틀을 세단하고 있었는데 실수율이 대단히 높 았다.》

《우리는 어서 빨리 가방을 만 드는 모습을 보고싶어 세단1작업의 작업현장을 찾았다.》

《남방보장이 잘되어 한겨울에 도 훌륭한 햇빛같은 현장을 산뜻한 작업복을 차려입은 여성 로동자들이 가방을 만드느라 여 념이 없었다.》

《직장에서는 다가오는 새 학년 도를 맞으며 시인의 소학교선생님 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가방생 산전투가 한창이였다.》

《한쪽에서는 세단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세단틀들이 판매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수율은 완성 된 가방들이 포장작업장으로 실 려가고있었다.》

《하루마다 학생들에게 가방을 안겨줄 일념으로 가방생산에 열 기게 되고 그 가방을 예고 갈기 학생이 되어 학교에 가고있는 심 정이였다.》

《우리가 작업에 열중하고있는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이끌어 갈 귀양아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평양시의 흥일거리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찾았다.》

《평수에서 찾았는가 하늘에서 내렸는가 소문도 없이 일떠선 몇몇이전물들이 우리를 먼저 주었다.》

《공장일꾼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먼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제품전반에 둘러 보았다.》

《제품전반에는 공장로동계급이 만든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는 각종 남녀학생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우리의 공장들에서 생산한 가방전과 부속자재를 가지고 만든것이였다.》

《다음으로 들린 곳은 세단작업장이였다.》

《가방생산의 첫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든 레이 자제단기제 가방틀을 세단하고 있었는데 실수율이 대단히 높 았다.》

《우리는 어서 빨리 가방을 만 드는 모습을 보고싶어 세단1작업의 작업현장을 찾았다.》

《남방보장이 잘되어 한겨울에 도 훌륭한 햇빛같은 현장을 산뜻한 작업복을 차려입은 여성 로동자들이 가방을 만드느라 여 념이 없었다.》

《직장에서는 다가오는 새 학년 도를 맞으며 시인의 소학교선생님 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가방생 산전투가 한창이였다.》

《한쪽에서는 세단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세단틀들이 판매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수율은 완성 된 가방들이 포장작업장으로 실 려가고있었다.》

《하루마다 학생들에게 가방을 안겨줄 일념으로 가방생산에 열 기게 되고 그 가방을 예고 갈기 학생이 되어 학교에 가고있는 심 정이였다.》

《우리가 작업에 열중하고있는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이끌어 갈 귀양아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평양시의 흥일거리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찾았다.》

《평수에서 찾았는가 하늘에서 내렸는가 소문도 없이 일떠선 몇몇이전물들이 우리를 먼저 주었다.》

《공장일꾼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먼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제품전반에 둘러 보았다.》

《제품전반에는 공장로동계급이 만든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는 각종 남녀학생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우리의 공장들에서 생산한 가방전과 부속자재를 가지고 만든것이였다.》

《다음으로 들린 곳은 세단작업장이였다.》

《가방생산의 첫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든 레이 자제단기제 가방틀을 세단하고 있었는데 실수율이 대단히 높 았다.》

《우리는 어서 빨리 가방을 만 드는 모습을 보고싶어 세단1작업의 작업현장을 찾았다.》

《남방보장이 잘되어 한겨울에 도 훌륭한 햇빛같은 현장을 산뜻한 작업복을 차려입은 여성 로동자들이 가방을 만드느라 여 념이 없었다.》

《직장에서는 다가오는 새 학년 도를 맞으며 시인의 소학교선생님 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가방생 산전투가 한창이였다.》

《한쪽에서는 세단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세단틀들이 판매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수율은 완성 된 가방들이 포장작업장으로 실 려가고있었다.》

《하루마다 학생들에게 가방을 안겨줄 일념으로 가방생산에 열 기게 되고 그 가방을 예고 갈기 학생이 되어 학교에 가고있는 심 정이였다.》

《우리가 작업에 열중하고있는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이끌어 갈 귀양아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평양시의 흥일거리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찾았다.》

《평수에서 찾았는가 하늘에서 내렸는가 소문도 없이 일떠선 몇몇이전물들이 우리를 먼저 주었다.》

《공장일꾼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먼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제품전반에 둘러 보았다.》

《제품전반에는 공장로동계급이 만든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는 각종 남녀학생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우리의 공장들에서 생산한 가방전과 부속자재를 가지고 만든것이였다.》

《다음으로 들린 곳은 세단작업장이였다.》

《가방생산의 첫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든 레이 자제단기제 가방틀을 세단하고 있었는데 실수율이 대단히 높 았다.》

《우리는 어서 빨리 가방을 만 드는 모습을 보고싶어 세단1작업의 작업현장을 찾았다.》

《남방보장이 잘되어 한겨울에 도 훌륭한 햇빛같은 현장을 산뜻한 작업복을 차려입은 여성 로동자들이 가방을 만드느라 여 념이 없었다.》

《직장에서는 다가오는 새 학년 도를 맞으며 시인의 소학교선생님 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가방생 산전투가 한창이였다.》

《한쪽에서는 세단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세단틀들이 판매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수율은 완성 된 가방들이 포장작업장으로 실 려가고있었다.》

《하루마다 학생들에게 가방을 안겨줄 일념으로 가방생산에 열 기게 되고 그 가방을 예고 갈기 학생이 되어 학교에 가고있는 심 정이였다.》

《우리가 작업에 열중하고있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본사기자 적음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자력갱생의 창조물로 일떠선 원산군민발전소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자들을 키운 크나큰 믿음과 사랑

우리 혁명은 백승의 사상과 정신을 원동력으로 하여 전진한다. 선군조선의 위용을 과시하며 강연장에 웅장하게 일떠선 원산군민발전소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강대한 정신력,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경에 해하는 원수님께서 강연도인민들이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워 조선통방 제7차대회에 선봉로 드린 원산군민발전소를 돌아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푸른 불 출렁이며 끝없이 펼쳐진 대인공호수를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밋밋소, 대단하오, 하라고 겸손한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다 시금 길잡이해 주시어, 대자연의 마음대로 길잡이는 우리 인민의 창조적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오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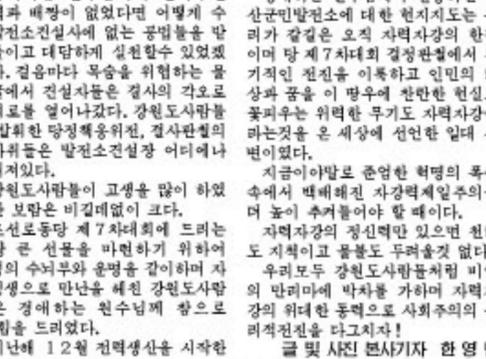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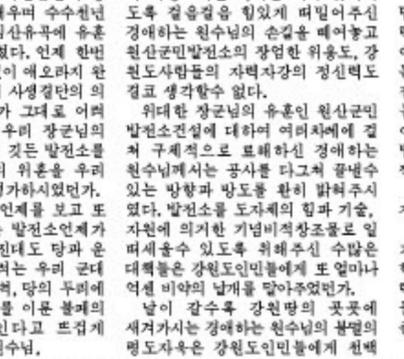
일떠세운 강연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력갱생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불굴의 투사로, 강연도정신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 한 영도의 일탄을 적는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적들의 방혈책동이 악랄해지고 임축한 반군이 결집수속 전체 군대와 인민이 땅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자력갱생, 간고로부리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하였기에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세일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습니 다.》** 지역자장의 거창한 창조물이 강연 땅에서 지대를 드러냈다. 마식령산줄기의 천연담반에 길이 푸르리니 신념의 장벽처럼 솟아난 언덕이 산리리를 휘감아 당당히 펼쳐진 대인공호수, 아슬한 신비랑을 타

고 줄줄이 떨어내린 아름드리철관로 불, 빈틈없이 일떠선 발전기실들... 건설의 함성이 산발불과 깊은 계곡들에 차넘치던 것이 몇고래같은데 발전기의 굉음이 울려오고있다. 그것은 강연도인민들의 심장의 박동소리인듯. 우리가 갈길은 오직 자력자장의 힘일! 나라에 손을 내밀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간고분투하여 발전소를 모란 듯이 일떠세운 강연도인민들은 자력자장의 소유자이다. 자력갱생이 있으면 그 어떤 고난도 단호히 물리치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원산군민발전소의 용자는 꿰차는듯하다.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종 격정에 넘쳐계셨듯 도 발전소를 자체로 일떠세운 자력자장의 정신력이 그로록 귀중하시었기 때문이 아니라, 높고낮은 산발불을 들었다놓던 건설자들의 전진 의 기상과 격정의 열기를 느끼는 듯, 수많은 건설자, 지인자들이 외와 소리로 치며 내달린 풍경이 시뻘새로 흐르던 물줄기들을 가로막고 미산같은 언덕 한 칸만 치밀어 서서히 잊지 못할 나날들을 추억하시는 듯 우리 원수님의 인상은 그 뜨거운 감자로 불결

사람의 정신력은 정병 얼마나 무궁 무진한것인가.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은 보통의 상식으로서는 접어들수도 해낼수도 없는 방대한 공사였다. 막대한 로력과 자재, 자금이 요구되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상상조차 할수 없는 자연의 대적력을 지르어야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발전소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해냈던 것은 경이하였으니 강연도사람들의 담력과 배짱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랴.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는것을 위하여 장군님의 간곡한 유혹이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결심이었다. 원히 《원산군민발전소》라는 이름도 지어주시고 발전소의 건설도도 보이주시고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념원과 인민 사랑의 제위가 뜨겁게 깃들여있는 이 발전소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 강연도인민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백불불굴의 정신력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수수천천의 고인이 깃들었던 정산유곡에 유혹과 관철의 격전장을 펼쳤다. 인제 원반을 건설자, 지인자들이 외와 소리로 치며 내달린 풍경이 시뻘새로 흐르던 물줄기들을 가로막고 미산같은 언덕 한 칸만 치밀어 서서히 잊지 못할 나날들을 추억하시는 듯 우리 원수님의 인상은 그 뜨거운 감자로 불결

자력갱생의 위대한 동력으로 승리해나가는 우리 혁명의 불패의 기상을 다시금 만민하여 과시한 역사의 땅 강연도. 사람들이여,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 내세운 불굴의 정신력이 거센 로 때려눕혔다만 생각하지 마시라. 강연도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서도 원산군민발전소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워주시신것이라는 하나 같은 목소리를 들게 된다. 그렇다. 강연도사람들이 자력갱생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욱 빛내이도록 정열을 불태우며 뛰어들어 오신 원산군민발전소의 승리를 위하여는 원수님께서 세워주시신것이라는 하나 같은 목소리를 들게 된다. 그렇다. 강연도사람들이 자력갱생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욱 빛내이도록 정열을 불태우며 뛰어들어 오신 원산군민발전소의 승리를 위하여는 원수님께서 세워주시신것이라는 하나 같은 목소리를 들게 된다. 그렇다. 강연도사람들이 자력갱생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욱 빛내이도록 정열을 불태우며 뛰어들어 오신 원산군민발전소의 승리를 위하여는 원수님께서 세워주시신것이라는 하나 같은 목소리를 들게 된다.

원산군민발전소를 돌아보시면서 당의 부름이러면 산도 피울고 바다도 떠우는 이런 강연도인민과 함께라면 천리불속이라도 달려 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강국의 문명을 맡게 될 남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강연도에 능력이 대단히 큰 발전소를 또 하나 건설한 강연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강연도정신의 창조자라고 불려주시며 온 나라가 따라올때 대한 최상 최대의 믿음을 인주시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자강도사람들이 위대한 창조물인듯 힘을 드린것처럼 오늘날은 강연도사람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밀한 위명이 되었다. 하늘같은 믿음이 있을진대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려우랴. 강연도사람들의 자력자장의 정신과 드높은 비야의 기상은 하늘에 닿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행하신 원산군민발전소에 대한 현지지도는 우리 갈길은 오직 자력자장의 한길이며 당 제7차대회 결정사항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인민의 피와 땀과 공을 이 땅으로 천천히 현실로 꽃피우려는 위대한 무기로 지역사장이 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명한 현대 사면이었다. 지금이아침 조운현 혁명의 폭풍 속에서 때때로 자력갱생의 위대한 불이 높고 솟아올라야 할때이다. 지역자장의 정신력만 있으면 원리도 지척이고 물줄도 두려울것 없다. 우리모두 강연도사람들처럼 비야의 만리마에 차를 가하여 지역자장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를 전진시키자!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영민



현지지도의 길에서 꽃피어난 이야기

유복자 발전소
발전소의 연혁조세설에 둘러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항상 영상사건문화원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주재 99(2010)년 7월 어느날 연세건설장을 찾으신 원수님께서서는 강연도인민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지혜로운 영상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행한 일꾼들을 둘러보시며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시어 함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전기문제를 풀려면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만반하로 돌리 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대규모수력 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완공된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강연도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으로 또 하나의 대규모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복을 빛나게 관철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위치가 좋고 실리가 큰 발전소

이번에 새로 건설한 원산군민발전소는 원전장상류에 인제 계곡을 뚫고 마식령산줄기를 끼고 수심 100m에 달하는 물줄기를 형성하여 시뻘새로 흐르는 강물을 통해 불려 막대한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 규모가 큰 유역변경수력발전소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소 위치를 잡아주시신 원산군민발전소 인제는 발전소건설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에 자리잡고 있다. 자무목장은 지형에 위치한 연제유역은 평년강수량이 다른 지

역에 비해 1.2배나 높아 물자원이 풍부할뿐아니라 주변에 혼한 혼서와 진흙, 사석원천으로 하여 건설에서 질과 속도를 다같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명당지라라고 할수 있다. 인제유역의 지반이 좋은 물의 유입도 막고 인제의 견고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한편 무인인제를 비롯한 수력구조물들을 합리적으로 앉힐수 있게 되어있어 발전소를 건설하기에는 아주 리성적이였다. 물줄길에서 발전기실까지 수심 10m에 달하는 막대한 리

기법 사진에 깃든 사연

이것을 전달해달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그의 말씀을 전달받으며 도안의 일꾼들과 인민들은 뜨거운 격정에 눈물과 땀을 흘리었다. 발전소건설의 나날 어려울 때 마다 힘과 용기를 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일일이 풀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와 크나큰

뜻깊은 사연
은정이 있었기에 강연도는 오늘과 같이 원기력을 보는 전국의 본보기로 될수 있었다. 하기에 일꾼들과 인민들은 고마움의 인사를 먼저 받으시어 할복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라고 목에 꿰치며 강연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현지지도사업에 헌신할것을 맹목적으로 맹세하였다.

언제나 첫 자리에

원산군민발전소를 현지지도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례없이 눈이 내리는 날씨에 도에서 발전소건설을 계속 내밀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제 건설하게 될 발전소가 몇개인가고 물으시었다.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꾼은 시, 군, 구

본사인마냥 평가리경사선에 서습었이 나섰던것이였다. 경사터원들이 직업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말출경으로 향할 때에 내내 한 몸이 이리저리 돌려다졌다. 말출구까지 수천m의 구간을 한치도 못히 헤쳐가 는 그들의 가슴속에서는 그 각각 어떤 노래가 울려오였다. ... 물결에도 그피운 아버지장군님 자녀네나 뭐고싶은 우리의 장군님 마나던 적후에서 북돋아할 우리의 전사들은 아침인사 드려옵니다 ...

불굴의 정신력, 그것은 사무치는 그리움의 분출이였다

《발전소건설 전과정이 다 그려졌지만 특히 마식령의 산발불을 펴지르며 떨어진 불길같은마는 사생결단의 결정을했습니다.》 원산군민발전소물길공사에는 불리한 조건속에서 진행한 아름차고도 방대한 공사였다. 거의 모든 정물이 수백m를 헤

나날을 더듬으며
저대한 지하강줄기를 이루어 불길같은 전구간에 사육초로크고있었으니 물길전투의 거칠게함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오랴. 이렇듯 힘포한 대자연의 지대한 격전에서 승리의 기적을 안아온 불굴의 정신력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붙였인가. 총성의 7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던 지난해 3월이였다. 불길같은공의 날을 눈앞에 두고있던 그 시각 불경대원불알에는 어렵고 절박한 하나의 파제가 제기되였다. 그것은 4경과 5경사이에 있는 마지막 림시물막이구조물해 작업이였다. 누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위 한한것인것을 잘 알고있었다. 원수님께서 림시물막이구조물을 가세하는 무서운, 작업도중 구조물이 그 거대한 수압에 견디어지지 못하고 터져나간단면 그로 부도 초래될 후파는 너무나도 초래된것이었다. 도당의 책임일꾼으로 부리 시작하여 도발

소건설지휘부의 일꾼들과 기술자들, 초급지휘원들에게 이르거까지 이 작업의 안전성을 최대로 담보하고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바로 그러한 때 도수산관리국 대대 정치지도원 리일동무와 대대의 6명 불경대원들이 이 작업을 자진하여 맡아나섰다. 이들과 어깨걸고 도발전소건설지휘부의 책임일꾼 리상철동무가 걸사대를 이끌었다. 자연의 광범한 돌격대의 모습과 단의 각오와 의지, 육탄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8명의 걸사대원들이 해체작업에 전일한것은 3월 28일 새벽 6시, 어깨를 넘은 물줄을 천여m나 펼쳐나간 그들은 마침내 림시물막이구조물해수련의 말뚝을 놓았다. 아홉이 차는 배반이 머져 나갔듯 부르르 떨고 기동같은 물줄기가 10여m나 떨어졌다. 땅이 통새로 꺼지는듯 한 생음, 굴안을 딱 여우며 휘부러지는 물로라, 한호한초 시간이 흐를수록 정안에 차오르는 물은 차츰 높아지고 걸사대원들이 말출경으로 무사히 빠져 가는것은 그만큼 희박해졌다. 순간순간이 그대로 생의 담보를 무너뜨리던 그 시각에 걸사대원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리일동무는 우리와 만년 지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에 서고보니 어에서 인지 불길같은마는 최정원 동지들의 모습이 떠오르오고 그들이 남긴 부락이 메아리가 되며 되새겨지는것이었습니다. ...》 그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그려낸 마나던 동지들의 모습, 그들에게는 위험한 봉파구간에 서습었이 한몸을 내어주어 강관통의 물과구를 열어놓은 이원군동대의 광범한 돌격대의 모습도 있었고 불치의 병이라는 의학적 결론을 받고도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후투위를 멈추지 않았 는 김화군중대의 한 지휘관의 모습도 있었다. 심장의 마지막도동을 멈추는 그 순간 그들이 한국소리마냥 남긴 길잡이들 누구였어인가, 위대한 장군님을 만났던 발전소에 모시지 못한 자책감을 금할수 없다. 풍지를 하루며 말 발전소를 완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려달라! 하기에 불경대원들은 떠나간 동지들의 피마추우 력막한 고물길에서 《어디에 게시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며, 《가리라 배두소로》의 노래를 부르며 백일전을 벌였다고 오늘날의 걸사대원들은 이렇듯



